불교 통일운동 '새바람'

통일후 포교대책 찾기 종책개발

남북 문화재교류 등 문화운동도

불교계 통일운동이 남북한 불교 단체간의 접촉에서 종책 개발과 문화운동이라는 새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교계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하순 창립 예정인 조계종의 가칭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정책·기획, 남북불교교류, 조사연구 등의 위원회를 두고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불교교류와 함께 △통일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 △통일의식 고양을 위한 대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사회부의 전형근 과장은 "올해 4차례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 안의 분열을 먼저 극복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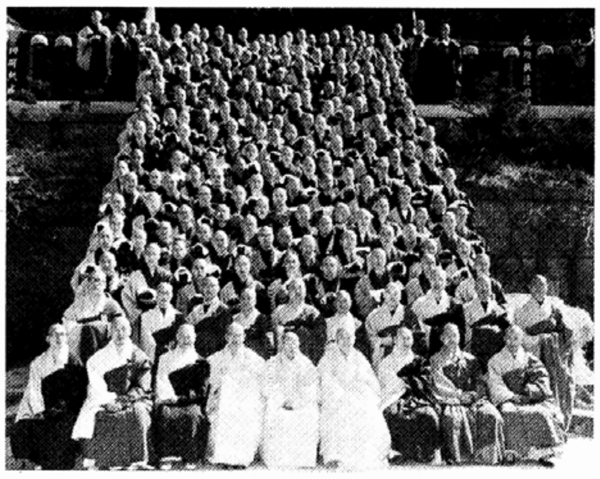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은 5월 8일 '통일문화운동'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실무준비를 맡고 있는 노귀남씨는 "지금까지의 불교계 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생활문화로서의 통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통일문화'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 상임집행위원장 명진)도 교계 단체와의 연대, 통일정책 워크숍 개최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대북접촉과 함께 통일분위기 확산 쪽으로 성격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계 통일운동이 종책개발과 문화운동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조불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뚜렷해 접촉 성과가 크지 않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조불련이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간체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단체는 관료집단의 하위기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 8.15 남북동시법회 개최 이상의 남북불교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계 통일운동가들의 지적이다. 남북불교교류의 조건으로 조불련에서 금전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조불련과의 접촉을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통일대비의 성격도 짙다. 유지원 불추위 사무총장은 "50여년 동안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통일 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포교사의 양성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불교계의 포교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은 3일 해인사에서 제18기 행자교육원 회향법회를 갖고 사미(니) 307명을 배출했다.

사미(니) 307명 배출

조계종 18기 행자교육원

조계종 제18기 행자교육원 회향 및 수계법회가 3일 해인사 보경당과 대적광전에서 봉행돼 사미 182명, 사미니 125명이 탄생했다.

3월 12일 개원된 후 23일간 계속된 이번 행자교육원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갈마를 거쳐 입교한 311명중 10명이·중도 탈락하여 301명이 수료했으며 지난해 계를 받지못한 6명을 포함, 모두 307명이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 숫자는 지난 91년 행자교육원이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중 외국인으로는 자은사미니(미국명 메이슨 조안, 화계사)가 홍일점으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이번 행자교육원 회향식도 속가가족들에게 문호를 개방, 가족들은 꽃다발을 건네주며 중생의 사표로 거듭나는 사미(니)들의 전도를 축복해줘 눈길을 모았다.

경학 율학 예경의식 습의 참회정진 3천배용맹정진 삼보일배등의 교육과정을 끝낸 사미(니)들은 출가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이의 마음에 광명을 일깨워주는 스님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조계종 기초선원

봄 교과안거 해제

대한불교조계종 기초선원(선원장 영진)은 3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봄 교과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3월 7일 결제에 들어간 봄 교과안거에서는 사미 86명과 사미니 41명등 127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한달간 동화사 대승사 백담사 동화사 양진암과 부도암등 기초선원 지정도량에서 집체교육과 좌선실수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했다.

이윤호 기자

신도회장단·종무원 재교육

조계종 포교원, 송광사서

광주·전남지역 사찰대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4월 15~16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신도회장단 및 신도간체 임원, 종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도법이 거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신도재교육에서는 '재가지도자의 임무와 역할' '지역 포교현황과 과제' 강의와 사찰예절, 발우공양, 분과토론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송광사 첫 신도간부 재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신도교육교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교육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신도회 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2월 산하신도회를 교구신도회에서 지역신도회 중심으로 정관을 변경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묻지마 봉사는 곤란

국내·외 장학승 선발

조계종, 8월31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8월 31일까지 2000년도 국·내외 장학승을 선발한다.

교육원은 장학승선발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선발대상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대 △재출서류 간소화 △논문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교육원은 이번부터 장학승 선발방식을 신원조회와 종헌적용에 의거했던 기존관례에서 완성된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논문심의로 변경했다. 김원우 기자

용주사 주지후보 정락스님

조계종 2교구본사 용주사는 4일 산중총회를 열어 정락스님(현 주지)을 주지후보자로 선출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선거인 146명 가운데 80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 정락스님은 69표, 운산스님은 9표를 얻었다.

정락스님은 59년 전북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3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수원포교당 주지와 5, 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규정부장과 기획실장,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96년부터 용주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불교 도메인' 지킨다

동국대 전자불전연 파킹프로그램 개발

불교 관련 도메인이 타종교인 도메인 사냥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가 최근 도메인 파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메인 페트롤'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메인은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버의 일련번호로, 네티즌들이 이것을 '사이버 얼굴'이라 할만큼 중요하다. 교계 도메인의 경우, 주로 법화(buphwa), 보문(pomun), 화엄(hwaum), 삼보(sambo) 등 핵심적인 교리용어나 대표적인 경전이름을 애용하는 특수성으로, 도메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개원간 불교 관련 도메인을 조사한 연구소측에 따르면 대원(daewon), 지장사(jijangsa), 해인사(haeinsa), 금산(kumsan), 마곡(magok) 등 60여건이 타종교단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선점해야 할 300여 개의 도메인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개발한 '도메인 파킹(domain parking)'을 사용해, 이들 도메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도메인은 '3만 3천원'이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주소를 되찾을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도메인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은 도메인에 대한 "선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계종 교구본사인 조계사(chogyesa)는 현재 도메인이 없는데, 타종교 단체나 개인이 나쁜 의도로 chogye(조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을 신청·소유했을 때, 조계사는 이를 되찾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광스님은 "재원이 허락하는 데까지 도메인을 사들일 계획"이라며 "이들 도메인은 관련 단체나 사찰의 요구에 따라 되돌려주거나 혹은 사이트를 개설·운영 등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사찰생태 문화답사

남원 실상사서 29·30일

사찰의 문화와 생태를 연구하는 '사찰 생태문화 답사'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주최로 4월 29~30일 이틀간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다.

사찰과 자연생태계의 조화, 문화재의 조성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 불교의 생명 사상을 체험함으로써 불교계 환경의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답사는 맑고향기롭게,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관하며 중앙신도회가 후원해 분기별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분당불교신도회 창립

분당불교신도회(회장 배조웅) 창립법회가 1일 뉴타운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배조웅씨(국민레미콘주식회사 대표)는 "관내 16개 사찰 불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분당지역 불교발전을 이루겠다"며 "매달 1회 수련대회등 신행혁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암도(전 조계종 교육원장), 우향(성남사암련 회장), 지묵(관음종 교무부장), 운광(원적정사 주지)스님등 스님 20여명과 최순식 성남부시장, 오인석 성남시부의장, 김영시 분당구청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승가대 14일 정기총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종)는 1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어 총동문회장 선출 및 예·결산 심의,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승가학원은 최근 정인스님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사무처장에 무상스님(전 봉은사주지), 총무국장 미등스님, 보육교사교육원 교학실장에 보각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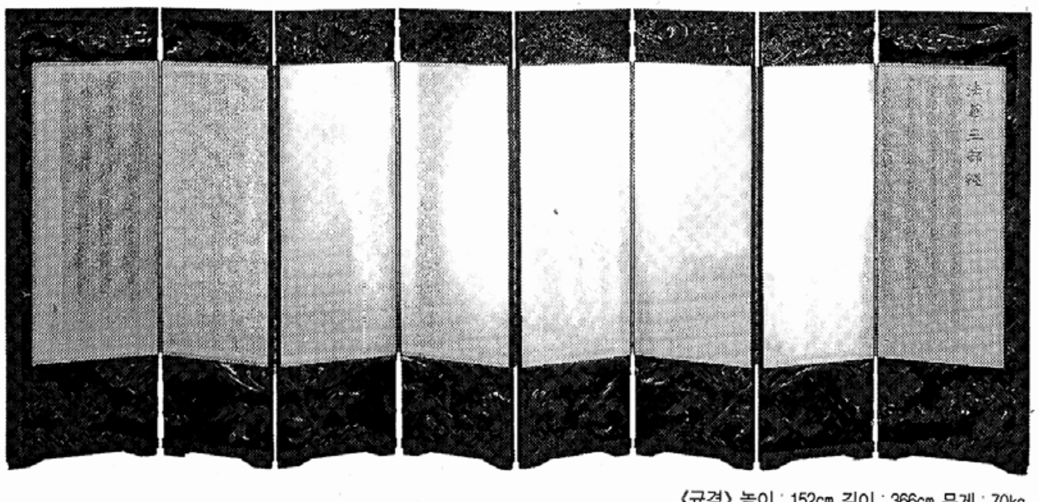
▷문 의 처 :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품 한품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품 한품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